

“지역 작가 국제 네트워크 쌓는 교두보 될 것”



계림동 아크갤러리 운영 엄기준·지아징징 부부



아크갤러리를 운영하는 엄기준·지아징징 부부.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문을 연 아크갤러리는 국제네트워크의 교두보를 꿈꾼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팀 머피’의 ‘0%’ 전.

화가 남편·기획자 중국인 아내 상상력 풀어낼 공간 조성 조선대 ‘팀 머피’S’ 전 31일까지...다문화 미술교육도 계획 “열린 공간으로 운영...선·후배 작가 교류 활발했으면”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마사회 맞은편 지하 공간에 젊은 청년 4명이 들어섰다.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현대조형미디어 전공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 머피’S’ 멤버들로 첫 전시(18-31일)를 앞두고 막바지 마무리를 위해 모였다.

청년작가들의 근사한 출발이 시작되는 곳은 아크갤러리(YARC Gallery)다. 공간은 ‘아지트’같은 느낌이었다. 작가들이 의기투합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재기 넘치는 작품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지하 30여평의 공간은 세련되고 정갈한 느낌보다는 투박하고 자유분방한 느낌이 강했다. 탁 트인 공간 대신 기둥과 벽이 자리하고 있지만 오히려 잘 이용하면 재밌는 전시가 이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디어·조각·설치·회화 등 ‘팀 머피’S’ 회원들의 작품은 공간을 잘 활용해 배치돼 있었다.

지난해 문을 연 갤러리 운영자는 서양화가 엄기준(35) 작가다. 조선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엄 작가는 ‘토루소’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통해 각인된 작가로 북경과 광주를 오가며 작업중이다. 사실, 30대 중반의 작가가 갤러리를 오픈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니다. 작품 활동에 매진하던 그가 공간 운영에도 나서게 된 건 아내 덕분이었다. 갤러리 공동 운영자로, 2017년 부부의 연을 맺은 지아징징(37)은 중국 출신 기획자다. 프랑스 MALHERBE 학술 아카데미

미술 수료한 그녀는 하얼빈대학에서 순수 미술을, 장춘대학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다. 광주비엔날레 기념 한중교류 ‘점화’전(2016)과 중국 798예술구에서 ‘Excavation’전(2018)을 기획했으며 2017·2018년 아트광주 국제커미셔너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처음 만났다. 작가로 활동하던 지아징징이 광주시립미술관 교류전에 참여했고,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레지던시에 참여, 3개월간 머물렀다. 2016년 엄 작가가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장작센터에 입주하게 되면서 인연이 이어졌고 두 사람은 2017년 광주시립미술관 로비에서 동료·선배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다.

“기획자와 살다 보니 공간 운영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작품 활동을 통해 저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상상력을 아내와 함께 ‘멋진 기획전’으로 풀어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죠. 아내가 중국인이자 보니 자연스레 국제교류전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 작가들이 국제 네트워크를 쌓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는 중국 네트워크에 소개하고 중국 홈페이지에 아카 이빙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갤러리는 예술의 거리와 좀 떨어져있지만 임대료 등이 저렴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 이곳에 동자를 틀었다. 이



고정훈 작 ‘avoidance’

건물에는 한국화가 류현자·정경래 작가가 입주해있으며 지하 공간은 서양화가 조규철 작가가 작업하던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개관후 호주·한국 작가 2인전 등 몇차례 전시를 열었지만 개인 작업과 함께 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열린 ‘비움 페스티벌’에 큐레이터로 참여하며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지난해가 예열하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시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면서 선배들처럼 후배들을 위한 일들도 조금은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공간이 선 후배가 교류하는 공간의 역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데 아직 저변은 그리 탄탄하지 못하는데 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탬 수 있으면 좋겠구요.”

아크갤러리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월에는 아동미술을 전시하고 이어 현재 광주시립미술관에 레지던시에 참여중인 프랑스 작가 플로라 바세의 전시도 준비중이다. 메가박스 첨단점 인근에서 공연·전시 등이 가능한 ‘문화공간 아크’도 운영하고 있는 엄 작가가 앞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건 다문화 가정 미술교육이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호응이 좋았어요. 아내가 미술 교육도 전공해서 사회적으로 미술을 풀어내는 데 관심이 많아요. 생각해 보니 우리도 다문화 가정이 됐더라도(웃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 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네요. 아내가 출산 준비로 진정애가 있는데 귀국하면 프로그램을 꾸릴 생각입니다.”

신년 기획전으로 마련한 ‘팀 머피’S’의 ‘0%’전은 학교 동기인 김명우 작가가 제안해 마련한 전시로 “재미있고, 실험적인 작품이 많아 준비하며 자극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 고정훈 작가는 욕망과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영상 설치 작품 ‘avoidance’를 선보이며 이철 작가는 인간을 알아가는 과정을 미로와 디지털 프린트 사진으로 표현한 ‘maze’an’을 전시하고 있다. 또 기억에 대한 집착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풀어낸 윤상하 작가의 ‘link’, 정덕용 작가의 ‘우리는 변해 있었다’ 등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강수지·김채영·오성현·이수진·박혜진 작가의 작품 등 모두 30여점이 전시된다.

광주시 동구 구성로 266. 오전 11시~오후 6시. 문의 010-7143-826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佛 그림책 작가 벵자맹 쇼 북 토크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 29일 세계적 그림책 거장인 프랑스 작가 벵자맹 쇼 초청 북 토크 행사를 열린다.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은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12시 30분까지 도서관 너른마루에서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 벵자맹 쇼는 2013년 뉴욕 타임스 올해의 그림책 선정된 ‘곰의 노래’를 비롯해 ‘아기 곰과 서커스’ ‘아기 곰의 여행’ ‘왜 지각을 했냐면요’, ‘알몸으로 학교 간 날’ 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날 북 토크에서는 작가가 올해 1월 출간한 ‘새로운 보금자리’ 등 3권의 신작



프랑스문화원 후원으로 마련됐다. 문의 062-960-681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야기를 들 수 있다. 또 빛 그림을 활용한 그림책 재해석 음 악공연, 작가 사인회 등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여류 당출판사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뒷얘기

광주극장 24일 클래식 다큐 ‘파이널리스트’ 개봉

광주극장은 오는 24일 클래식 다큐 ‘파이널리스트’ <사진>을 개봉한다. ‘파이널리스트’는 세계 3대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결승 진출자 12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채 8일간 합숙하며 치러지는 결승전 준비 과정이 처음 소개된다. 2015년 당시 한국인 3명이 동시에 결승에 올라 화제를 낳았던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이지윤, 김보소리가 출연한다. 전체 관람가.

김보소리는 오는 2월16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소용 콩쿠르에서 우승한 폴란드 피아니스트 라파우 블레하츠와의



듀오 콘서트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또 한국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에서 우승한 임지영은 오는 6월 유스퀘어 문화관 개관 10주년 공연으로 광주를 찾는다. 같은 날 71회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은 ‘가버나움’ (레바논·15세관람가)이 개봉한다. 문의 062-224-585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일구 사진작가 작업실 방문 행사

광주비엔날레 22일 ‘GB 작가스튜디오 탐방’

(재)광주비엔날레는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GB 작가스튜디오 탐방’의 올 첫 행사로 오는 22일 오후 7시 박일구 (사진) 사진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한다. 남도의 문화유산과 풍광을 오랫동안 영글어 담은 박작가는 기록과 예술이라는 사진의 두 속성을 가로지르며 확장된 사유로 그만의 세계를 풀어낸다. 그의 ‘남도 바다’ 작업은 남도 바다가 색으로 추상화된 서정적 아름다움이 두드러진다. 조선대학교 사학과, 광주대학교 사진학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진학과를 졸업한 박작가는 총 13회 개인전을 비롯해 2007광주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 등 2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0년 김한기 국제미술제전 레지던시, 2009년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시, 2008년 송은미술대상에서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미협 미디어분과 이사, 한국사진학회 운영위원, 사진공방 낚 대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GB 작가스튜디오 탐방’은 매달 한차례씩 진행되며 지역 작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608-423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운 소리를 듣다’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년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인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연회비

구 분	연회비(VAT포함)	비 고
개인(1년)	₩ 2,800,000	본인 1인
증정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무료이용권 2매 • 레스토랑 이용권 1매 • 휘트니스 이용권 4매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